

국방과학연구소의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참가 후기

:: 황재영_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연구소는 1970년 8월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여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 완수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기술정보관리 조직 역시 연구소의 태동과 함께 일찍 있어왔는데, 미 국방기술정보센터(DTIC)를 모델로 삼아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려고 노력하였다. 한 때에는 기술정보센터로까지 확장되었으나 그 후 조금씩 축소되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5년 기록물관리 전담 조직이 신설되었다가 합쳐지는 등,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과 달리, 조직의 부침이 심했었다고 하겠다. 다행히 최근 2014년 10월 기술정보실 산하에 공식 운영단위 부서인 기술정보과와 기록관리과를 신설하였고, 신입소원까지 채용하면서 활력을 되찾고 있으며, 새로운 도약과 부흥을 꿈꾸고 있다.

전국도서관운영평가의 시작으로부터 8년이 지나야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정보실은 비로소 평가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국내 전문도서관 중에서 조직, 인력, 예산, 장서, 시설 면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참

여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참여하게 된 데에는 사실 남다른 의미가 있다. 국방분야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라는 연구소 수행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노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지만,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수검하면서 현재 수행업무의 공과를 스스로 진단해보고, 또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재설정해보고자 하는 점도 있었다. 2014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의 수검을 위한 준비는 2013년 8월로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평가만 평가를 받기 전에 한 번쯤은 모의고사를 치르고 점수를 내어 볼 것이다. 그동안의 우리 연구소 규모나 역사를 볼 때 당연히 좋은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지만 예상과 달리 그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수가 나왔었다. 그 때부터 평가 수검을 위한 준비는 다시 시작되었다. 우선 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타 기관들의 사례를 조사하였고,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다. 그리고 평가 지표에 있는 항목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시작하였다. '연차보고서, 중장기발전계획서, 업무편람, 홍보 책자' 등 그동안 현업에 바빠서 등한시 하였던 부분들도 꼼꼼히 보완해나가면서 깨달은 것은 아~ 이것이 바로 도서관

그림 1 ▶ 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장면



운영평가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 싶었다. 우리 도서관의 지표와 타 도서관의 지표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서,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 도서관이 잘하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 도서관이 부족한지?' 스스로 알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평가의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도서관 운영평가는 도서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서비스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도서관 운영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이를 포상함으로써 타 기관의 모범이 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함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 모든 관공의 도서관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고 질적 성장을 촉진시켜서, 결국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

고시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평가의 수검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도서관 운영실적을 대상으로, 2014년 6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서 받았다. 1차는 서면평가 수검, 2차는 현장 실사평가 수검이 있었고, 최종 3차는 위원회의 심의까지 있는 후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전문도서관 운영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우리 도서관이 비교적 우수했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서관경영 부문에서 『기술정보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 실행 전략을 마련하였고, 실질적인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 추진하였다. 대표

그림 2 ▶ 2014 전국도서관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전시 부스



적인 예로 도서관 이용자 교육 시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원격지에 있는 이용자들도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도서관의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예산편성 설명자료』를 아주 충실하게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소 예산관리 부서 및 상위 기관 예산관리 담당자를 설득함으로써, 괄목할만하게 예산이 증액된 점은 우리 스스로도 높게 평가하고 싶다고 하겠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도서관 운영에 가능한 즉시즉시 반영하였다. 또 『기술정보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정립함으로써, 업무처리 기초 가이드로 삼도록 하였다. 도서관 홍보도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하였는데, 도서관 홈

페이지는 물론이고 기관의 포털 홈페이지에도 도서관 활동 소식을 지속적으로 가능한 많이 노출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기술정보 업무안내 50選』이라는 기술정보 이용자용 가이드를 제작하여 매주 주기적으로 포털 등에 게시하여 알림으로써,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잊지 않도록 계속 상기시키면서 이용을 유도하였다. 더불어 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최신 콘텐츠와 서비스를 알리는 『ATIZNE 클릭!』이라는 웹진을 2006년부터 격월간으로 발행해오고 있었는데, 이 또한 지속적으로 발행하였다.

인적자원 부문에서는 정보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기술정보실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정사서1급 자격증을 갖추도록 하였다. 물론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지 않는 직원들에게도 도서관 관련 훈련이나 세미나에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기회를 줌으로써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시설환경 부문에서는 도서관의 시설을 보수하였고, 장비도 최신 사양으로 보강해줌으로써 이용자 환경을 가능한 편리하고 안락하게 제공하였다. 지난 2007년에는 도서관 공간의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인포카페(북카페)를 오픈하였다. 인포카페의 일부인 세미나실은 주로 기술정보 이용교육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이용자교육이 없는 시간에는 일반 연구원들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세미나실은 연구소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어서, 세미나실 이용 방문 시 자연스럽게 열람실 방문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예전 이용자 감소로 비었던 열람실 공간의 허전함을 채워주고 있고, 또 조금이나마 자료의 이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공간이 되고 있다.

전자도서관은 연구소 특성상 3개 망(연구소 내부망, 국방망, 인터넷망)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2013년에는 UNIX/JAVA 기반의 관리자용 시스템을, 2014년에는 UNIX/JAVA 기반의 이용자용 시스템을 전면 전환하여 구축하였다. 아울러 내년 초에는 대외망 이용자 서비스까지 새 시스템에서 가능하도록 개발 중에 있다. 소내망 전자도서관의 연구성과물관리 모듈로 “연구보고서, 논문, 강의, 평가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는데, 연구소의 역사가 45년에 이르다보니 이들 자료의 원문활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보자원 부문에서는 장서개발정책을 성문화하고 이를 근거로 수집 활동을 하고, 매년 Web DB, 전자책, 학술군사전문지에 대한 구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장서의 수량뿐만 아니라 이용률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장서 구성면에서는 단행본, 정기간행물뿐만 아니라 연구소에서 많이 활용되는 도면, 규격/표준서, 해외 기술보고서 등 기술자료도 보유하고 있으며, 무기체계 구매 시 획득한 절충교역 및 기술도입으로 획득한 자료 등 특수한 자료도 상당량 보유 관리하고 있다.

정보서비스 부문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기술정보에이전트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주제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정보에이전트서비스는 연구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발생하는 기술정보 요구를 특정 사업/과제 관점에서 파악하고 조사하여 이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연구밀착형 정보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또 국내외 국방기관 및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관련 전문학술지를 대상으로, 우리 연구소 사업/과제와 관련성 있는 최신 기사를 선별 가공하여 이를 원문과 함께 제공하는 『최신 국방과학기술기사』를 격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자 교육면에는 “학술/군사DB 활용법 소개”라는 제목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총 11차례의 이용자 교육을 시행하였고, 그 참가자 수는 256명에 달하였다. 또한 국방분야의 핵심 콘텐츠라 할 수 있는 Jane’s 출판사 간행물 서비스(JDDS: Jane’s Defence Data Service)를 활용하여, 매일 연구소 사업과 밀접한 기사를 발췌 가공하여, 연구소 포털에 게시해줌으로써, 연구소원들이 최신 국방기술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간의 활동 내역들은 『기술정보 연차보고서』에 남겨서, 향후 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수검 후 막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통보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 수고한 우리 실원들의 땀과 정성이 가슴으로 다가왔었고 보

람과 긍지를 느꼈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받은 만큼 도서관계로 되돌려 기여해야겠다는 책임감 또한 느끼게 되었다. 수상 후 연구소 내부적으로도 많은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다. 사실 도서관 업무의 수행결과는 대부분 외부로 잘 표시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연구소의 많은 이용자들이 우리의 노력을 인식, 지지 및 응원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 보답으로 수상 인센티브로 받은 포상금은 실원들의 흔쾌한 동의를 얻어서, 연구소 연차 장학회에 기탁하였는데 이 또한 의미 있는 일이 되었다.

최근 연구소 지휘부 및 참모부서는 우리 실의 존재가치를 높게 재인식하였고, “전 연구소의 데이

터를 관리하는 일”, “퇴직/재직자의 노하우와 보유 자료 관리” 업무를 우리 실에서 종합 수행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비록 새로운 업무들로 힘들어지겠지만, 미래 후배 사서들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자세로 임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국 도서관대회 기간 중 홍보전시관을 방문하여 축하와 격려를 주셨던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KSLA) 회장님 및 이사님, 여러 사서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이처럼 도서관계의 미래를 개척하고 계시는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